

## 치 사

대전 충남의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송년법회를 축하하며, 대전충남의 불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교구를 가꾸어 오신 스님들과 봉사하며 헌신하신 재가불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송년법회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함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는 해를 맞이하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불교 포교가 미래 불교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6교구는 이러한 중요한 전법활동을 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늘 생각하고 불퇴전의 신심과 굳은 원력으로 불교 흥포의 책임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해 받은 상나화수 존자가 다시 법을 전하게 되는 우바국다 존자를 만났을 때의 일화는 한해를 넘어가는 즈음에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좋은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상나화수 존자가 나이를 묻고 우바국다 존자가 ‘십칠세’라 답하자 상나화수 존자는

“그대의 몸이 십칠세인가 성품이 십칠세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품이 십칠세는 아닙니다.”

라고 답하고는 오히려 조사께 여쭙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마음이 희십니까? 머리가 희십니까?”

조사의 범거량을 지혜롭게 받아내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니 상  
나화수 존자는 즐거이 대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흰 것이지 마음이 흰 것도 머리가 흰 것도 아  
니니라.”

두 조사께서는 범거량을 통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불성이  
영원함을 밝히시고 마음은 결코 늙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  
리 불자들에게 늙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젊고 영원합  
니다. 그러한 마음이 대전 총남의 불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코 하얗게 세지 않은 젊고 건강한 마  
음을 간직하고 언제나 청년 같은 포교 원력으로 이웃을 부처님  
께 인도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는 6교구가 될 것을 기원드리  
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